

# 3036억 짜리 기업도시 진입도로 누가 잡을까

〈영암 삼호읍~해남 산이면 10.83km〉

## 내주 턴키방식 입찰

## 건설업체들 수주경쟁

## 전남도, 6월초 업체 선정

총공사비 3036억원으로 전남에서 최근 발주된 새 공사 가운데 가장 대규모인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진입도로 가격 입찰이 다음주로 예정되면서 수

주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삼호읍(국도 2호선)에서 해남 산이면(지방도 806호선) 10.83km를 연결하는 솔라시도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업체들은 오는 21일 조달청이 실시하는 가격 입찰에 응할 예정이다.

1·2공구로 분할해 발주되는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 1공구(5.4km·교량 2.2km 포함)에는 한양건설, 포스코

건설, 대림산업이, 2공구(5.4km)는 금호건설과 금광기업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1공구(공사비 1675억원)는 설계평가 65%, 가격 35%가, 2공구(공사비 1022억원)는 설계평가 55%, 가격 45%가 각각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가격을 어느 업체가 적게 저어내느냐에 따라 최종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공구가 1공구보다 가격 변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들은 가격입찰에 앞서 20일 전남도에 기본설계를 납품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초 16명(공무원 8명·외부인사 8명)이 참여하는 설계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계평가를 하고 설계평가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해 6월 초께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장현 시장 세월호 1주기 추모 분향

윤장현 광주시장과 실국장,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 등이 14일 오전 광주YMCA 무진관에 마련된 세월호 1주기 시민추모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 장혜숙 광주여성재단 대표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

### 광주시의회, 업무능력 등 검증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끄는 가운데 광주여성재단 장혜숙 대표이사 내정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 첫 대상이었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가 결국 '낙마'하는 등 혹독한 검증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

일 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낙마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청문회다.

서미정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특위는 이날 장 내정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업무수행능력과 비전, 경력, 도덕성 등을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특위위원들은 재산, 학력, 경력 등 20여개의 각종 자료 등을 이미 제출받아

사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재단을 이끌 대표로서 적합한 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장 내정자의 업무능력과 함께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장 내정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윤장현 시장의 TV 토론회 찬조발언을 하는 등 사실상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일부 특위 위원과 장

내정자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가 제대로 될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장 내정자가 지역 여성계 중진이라는 점 때문에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앞서 윤재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는 지난 9일 인사특위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결과 보고서를 사장 임면권자인 윤장현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자진사퇴 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와 시의회 간 청문 협약서에 '적격과 부적격'이라는 용어를 청문보고서에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시의회가 이 규정을 지킬지도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중서 각각 1000만달러 수출계약

### 자동차부품·농수산물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중국에서 각각 10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14일 "중국 광저우, 충칭, 베

이징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벌여 자동차부품, 의료마용, 소비재 등에서 100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광주 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한 중국 시장

개척활동에서 1017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맺고 4729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벌였다.

주요 수출협약으로 자동차 부품용 공급하는 (주)화인특장은 중국 베이징과 충칭 등 5개 업체에 자동차 부품품질, 기술적인 제안, 관리체제 등을 수출하기로 하고 12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이끈 전남 투자유치

단은 중국 방문 사흘째인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농수산 식품 유통업체들과 1000만 달러의 수출계약(MOU 포함)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에서 참석한 고희의 참사리영농조합법인 유자차 등 5개 품목에 대해 중국 향림상무유한공사와 300만 달러, 청도 삼정화 국제무역유한공사와 2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순태 칼럼

꽃비가 불뿔 날리던 날 담양 죽녹원으로 나들이를 했다.

서울에서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배가 가족들과 함께 담양으로 인문학 여행을 왔다고 했다.

봄별 짙푸른 주말, 죽녹원은 관광객으로 넘쳤다. 이제 담양이 남도답사 1번지임을 실감했다. 대숲이 뿔뿔이 흩날리는 흠뻑 마셔 한결 머리가 맑아진 나는, 고등학교생인 후배 아들에게 "대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지?" 하고 물었다. 나는 아이에게 인문학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아이는 "푸르고, 곧고, 속이 빈 것"이라고 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했다. 나는 더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사군자의 하나" 라고 하자 아이는 "오우기"라고 했다. 아이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선비정신도 있고 죽장을 든 동학군이다. 오죽헌, 죽부인전, 죽림철현, 죽간, 죽시, 묵죽, 피리 대금 같은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도 있다고 말했다.

생각한다."고 했다. 곧은 군자다운 강직함, 푸름은 불변의 절개, 마디는 절제와 결단력, 비어있음은 진공묘유(眞空妙有)의 깊은 철학과 무욕을 상징하는데, 그 외에도 뿌리의 견고함을 첨가한 것이다.

시인목객들은 대나무에 대한 시를 쓰고 묵죽 치는 것을 즐겨했다. 김시습(金時習)의 시 산중죽(山中竹)과 김삿갓의 죽시(竹詩)가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당대 선비라면 누구나 다투어 갖기를 소원했다는 양학포(梁學圃)의 묵죽은 유명하다. 나는 대나무 시 중에서도 북효군의 '어느 대나무의 고백'을 좋아한다.

／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품모를 읽고 가지만 / 내 몸 가득 간간이 들어찬 어둠 속에 / 터질 듯한 공허와 희이를 아는가 / 고백전대 /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개를 운운하지만 /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 허리뼈가 빼개지도록 휘둘러도 / (중략)

## 인문학과 대나무 엑스포

문학·역사·철학·미술·음악 등 대나무가 갖고 있는 인문학 소재는 실로 무한하다.

나는 만파식적(萬波息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신라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갑은사를 짓고, 해룡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으로부터 대나무를 얻어 만든 피리를 불었다.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 때 비가 오고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졌다. 만파식적 대나무 피리소리는 천하를 화평하게 하며 모든 인간의 번뇌를 잠재우게 한다 하였는데, 이는 범종(梵鐘)이 갖는 뜻과 같다. 범종에 만파식적 형태의 음통(音筒)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대나무 피리소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선비들은 사군자 중에서도 대나무가 군자의 맑은 덕(淸德)을 상징한다하여 특별히 좋아했다.

고려 문인 이인로(李仁老)는 대나무를 맑은 친구(淸友)라 하였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양죽기(養竹記)라는 글에서 푸르고 곧고 마디와 비어 있음 외에, 여간해서 뽑히지 않은 튼실한 뿌리를 강조했다.

"대나무 뿌리는 견고하니, 견고함을으로써 덕을 세우므로, 군자는 그 뿌리를 보며 잘 세워 뽑히지 않을 것을

죽녹원에서 내려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관에 들렀다. 담양군은 145억을 들여 9월17일부터 열리는 대나무 엑스포 준비로 바쁘다. 담양하면 대나무를 떠올릴만큼 브랜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 대나무 총면적 7039ha 중 담양이 25.5%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에 대나무박물관을 개관했고 대나무 관련 무형문화재도 많다. 채상장, 참빛장, 죽림장, 낙죽장, 부채장 문화제와 악기장 명인 준명인 등 19명이 대나무문화의 전통을 이어간다. 또 한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국 유일의 청죽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런 연유로 담양에서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나무의 악리적가치, 산업적가치, 환경적가치보다는 인문학적가치를 다양하고도 집중적으로 드러냈으면 어떨까 싶다.

담양은 소재의 면양정을 비롯 정자 문화와 가시문학으로 유명하다. 이제 산업시대는 가고 인문학시대가 왔다. 대나무의 인문학적가치와 선비문화 화를 접목시킨다면 보다 새로운 인문주의적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는 산업적가치보다 인문학적가치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수술 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력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문의처: 노안리식(Karma Inkay)를 이용한 시술/최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드를 니버비전 인레이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종-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